

산후조리비 확대·건축규제 완화... 서울시민, 목소리 높인다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저출생문제 극복 민원 572명 지지 유기동물 안락사 방지 등 요청

서울시민들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서여의도 고도 규제 완화, 유기동물 안락사 방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1일 서울시의 온라인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 시행일을 정책 발표일로 조정해 대상자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지난달 11일부터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시민 572명의 지지를 받아 이달의 최대공감 제안으로 뽑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산후조리경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서여의도에 있는 여의도공원 모습.

/김현정 기자

이모 씨는 "6월 말 출산 예정이어서 단 며칠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해 많이 아쉽다"면서 "시행일(9월1일)이 아닌 정책 발표일(4월11일) 이후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주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저처럼 아쉬운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며 정책 수혜 대상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족다문화담당관은 "산후조리경비 사업이 일부 자치구에서만 추진돼 산모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

라 아쉬운 점이 있어 이를 시 전역으로 확대,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회보장협의체 안료, 예산 확보 등의 사전 절차로 인해 부득이 9월1일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서여의도의 고도 규제를 완화해 여의도 동북아 금융허브로 조성하지는 제안은 지난달 10일부터 현재까지 시민 63명의 공감을 얻었다.

신모 씨는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은 여의도를 국제금융허브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 정책적 규제"라면서 "국회가 있어 낮은 건물들만 준비한 서여의도는 세계적 금융사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1차적 관문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서여의도의 높이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서여의도에 해당하는 여의도공원 서측 일대는 주요 시설물인 국회의사당의 시설 및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로 지정, 높이를 제한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시 도시계획과는 "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는 서울시 전반의 도시계획 관리 정책과 연계되는 사안으로 신중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에서 지역 여건 변화와 실태 분석을 통해 높이 제한 조정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기동물들이 보호소에서 안락사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청원 글은 올 4월 10일부터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시민

57명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홍모 씨는 "서울에서 구조된 유기견·유기묘와 길고양이는 보호소에 들어가게 되고 일정 공고 기간을 거쳐 입양되지 않으면 대부분 안락사당한다"며 "서울시에서 먼저 동물 복지에 모범이 돼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 입양 시설을 만들어 운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시 동물보호과는 "서울시는 입양률을 높여 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양 대기 기간 10일을 추가로 부여해 최대한 입양을 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인 반환이나 새 주인에게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기동물이 생을 다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유기동물 보호 비용과 지속적으로 동물이 입소하는 동물보호센터 수용 시설의 한계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임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36만 '약자가족' 지원 강화 나서

한부모,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대상자, 중위소득 150%로 확대

서울시는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등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올 하반기부터 29만 한부모가족의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한다.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가사 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월 3회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 교통비·교육비'는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넓힌다. 교통비는 분기별로 8만6400원

을 보조하고, 교육비는 고등학생 자녀에게 살비로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월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와 양육용품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기르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선보인다.

관내 약 541가구로 추산되는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로 늘리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 사업을 시작한다.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 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신규로 지원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급한다.

올 하반기부터 '다문화 엄마학교'를 운영해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교육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hjk1@

파주시, 교량 안전사고 예방 긴급점검

교량 107개소, 자체 전수점검 실시

파주시는 최근 성남시 분당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량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교량 107개소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공무원, 외부 전문가, 안전진단업체, 유지관리업체 등 민관합동으로 C등급 교량 2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상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점검을 통해 ▲교면포장상태, 바닥판, 거더 등 누수·균열 발생여부 ▲교대·교각 등 기초 구조물 균열·파손 여부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이상징후 확인 ▲관매달기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 여부 등 시설물의 안전

성과 파손 여부를 살폈다.

점검 결과 안전상 문제는 없지만 교량 노후화에 따라 주요부재에 일부 손상 등이 있어 마장교, 공릉천교, 비룡교, 가야교 등 4개소에 대해서는 내하력 시험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를 교훈 삼아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점검에서 확인된 결함 및 이상 징후에 대해 적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해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반기에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1 | 해질 / 19:19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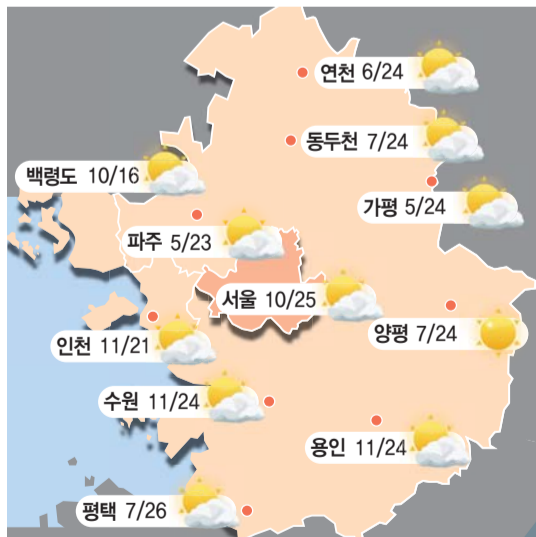
2일 (화)

음력 : 3월 13일

수도권 날씨

10~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교내 '학폭 갈등' 관계조정으로 해소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발생 초기 단계에서 학교 내 관계조정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SG 봄!봄!봄! 관계이음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SG 봄!봄!봄! 관계이음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에 학교 내 관계조정 전문가가 비대면 활동 중심으로 학생 간 갈등을 직접 조정해 관계를 개선하는 활동이다. /신하은 기자

통인·신중앙 전통시장 디자인 탈바꿈

역사성·특수성 살리고 예술 접목

서울시는 중구 신중앙시장과 종로구 통인시장을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보수해 위생과 기능을 현대화하는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통시장의 지역성·역사성·특수성을 살린 독창적 외관에 예술적인 실내 디자인을 접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

진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시설물 설치, 일부 공간의 개보수를 넘어 시장 내 공용시설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개선해 시장의 정체성을 살리는 게 이 사업의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신중앙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과 연계해 2030 세대가 좋아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외국인이 즐겨 찾는 통인시장에는 경복궁·서촌 등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입혀 관광 명소화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中에 "필리핀 공격엔 우리가 방어" 경고 /사진 뉴시스
▲호주 연 순이민 40만명 역대 최대 전망... 주택난 우려 심화

▲우크라 봄철 대만격 '코앞'... 장갑차·전차 1800대 출격한다
▲튀르키예 "IS 수괴 알후세인 사살"... 존폐 위기 맞은 IS



▲기시다 일본총리 한국방문, 7~8일로 확정적
▲영철3세 대관식에 혈세만 '1700억원'... 어머니 때의 2배 /사진 뉴시스